

ETH Zurich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정석민

파견 학부: Materials Science

파견 기간: 16.09.2024 – 14.02.2025

1.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생활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으며, 이를 실현할 기회로 ETH Zurich 교환 프로그램을 선택하였습니다. ETH Zurich는 공학과 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으로, 다양한 연구 활동과 우수한 교육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전공 분야에서 최첨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학문적인 성장을 이루기에 최적의 환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TH Zurich는 비영어권 국가에 위치하고 있지만,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가 많아 언어적인 장벽이 크지 않았습니다. 또한, 스위스는 안전한 치안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춘 국가로, 학업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ETH Zurich를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목적지로 선택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2. 학업 경험

ETH Zurich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Semiconductor Nanostructure, Thin Films Technology, Emerging Memory Technologies, Composites and Hybrids 네 가지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연구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지는 못했지만, 강의 자체가 매우 유익하고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ETH의 강의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교수와 학생 간의 활발한 소통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수업 중에도 학생들의 질문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었습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이 강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수업이 끝난 후에 질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ETH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중에도 질문을 하며 교수님의 설명과 자신의 이해 사이의 괴리를 줄여나갔습니다.

또한, 구술 시험(Oral Exam) 역시 인상 깊었습니다. 이 시험 방식은 연구자들 간의 학문적 토론이나 취업 면접과 유사한 느낌이었으며, 교수와 학생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구술 시험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한 암기가 아닌,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3. 생활 환경

WOKO 기숙사 생활

저는 Meierwiesenstrasse 62 에 위치한 WOKO 기숙사에서 거주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이웃들은 친절하였으며, 덕분에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비협조적인 이웃들이 있었는데, 공용 구역 청소를 하지 않거나 사용 후 정리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공용 주방이 매우 더러웠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벌칙 시스템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제외하면 WOKO 에서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현지 친구들과의 교류

ETH 에서 저는 몇몇 좋은 스위스 친구들을 사귄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Zvieri 행사에서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했던 스위스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었으며, 몇 차례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위스 현지인들과의 교류는 교환학생 생활에서 가장 뜻깊은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자연과 함께한 경험

스위스의 자연을 경험하는 건 교환학생 중에서 정말 손 꼽히는 경험이었습니다. 9 월에는 강과 호수에서 수영을 했고, 10 월과 11 월에는 하이킹을 즐겼으며, 12 월과 1 월에는 스키와 썰매를 탔습니다. 스위스는 자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며, 이를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4. 생활에 유용한 팁

교통 패스 활용

SBB 의 Half-Fare Card 를 구입하면 기차, 트램, 버스 요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으며, Night GA Travelcard 를 이용하면 야간 시간대에 추가 비용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ZVV 의 Zone pass 를 구입하면 매일 통학하는 경우 교통비가 크게 절약됩니다.

식료품 구입

Coop, Migros 에서 대부분의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으며, 한식 재료는 중앙역 근처의 유미하나(Yumihana)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Lidl 과 Aldi 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장을 볼 수 있는 대안입니다.

의료보험

Swisscare 보험을 이용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스위스에서 필수 건강보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저는 38 프랑의 옵션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중고 거래

Ricardo, Tutti 등의 사이트를 활용하면 생활 필수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영어 사용 환경

스위스 사람들은 대체로 영어를 매우 잘 구사하였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은행 직원, Coop 마트 직원, 택시 기사까지도 훌륭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어 실력이 부족하였지만, 스위스에서 생활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점이 스위스를 교환학생지로 선택한 것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스위스 한인 단톡방 및 한인 학생회

취리히 현지에는 연구자분들을 바탕으로 한인 학생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단톡방과 메일을 중심으로 중고거래와 정보교류,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니 혹시 파견이 예정된 분은 다음 메일로 연락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ksa@ethz.ch

4. 교환학생을 마치는 소감

ETH Zurich에서의 교환학생 경험은 학문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큰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최첨단 연구 환경에서 공부하며, 글로벌한 인맥을 쌓을 수 있었고, 유럽 문화와 생활을 직접 경험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특히, ETH의 교수님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학습 환경과 구술 시험 시스템은 학문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WOKO 기숙사에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생활하며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었고, 스위스 자연을 직접 경험하며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ETH Zurich에서의 교환학기를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미래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연구 환경에서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귀중한 기회를 제공해준 ETH Zurich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교 국제협력실 및 지원 기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